

조주리

교류의 기술: 좋은 거짓말, 부드러운 혁파

이화여대와 동대학원에서 심리학과 미술사를 공부했다. 초현실주의 작가 한스 벨머의 사진 작업에 내재된 안티-파시즘적 에로티시즘을 주제로 연구논문을 썼다. 이후 런던시티대학에서 도시만들기 과정에서 작동하는 디자인정치학에 관한 연구로 석사를 마쳤다. 2015년 서울대학교 디자인역사문화과정에서 박사 수료 이후 일상 이미지의 역사성, 그리고 동시대 디자인과 미술 사이의 길항과 착종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십대에는 미술관 인턴, 문화정책보고서의 리서처, 미술번역과 잡지기고와 같은 일들을 보조적 위치에서 수행하며 얻은 파편적 경험들을 서로 이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대학원 졸업 후 헤이리 예술마을 사무국에서 예술기획팀장으로 일하며 다원예술 축제와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그램, 국제 교류업무를 수행했다. (2006-2008) 이후 축제 프로그래머, 프리랜서 라이터, 비엔날레 실무자, 기업 컨설팅, 큐레이터 오피스 운영 등 다양한 노동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실험, 확장해 오고 있다.

지난 몇 년 간은 주로 동시대 예술가들이 처한 새로운 창작 환경과 방법론의 변동 지점들을 조명한 전시를 선보여왔고, 한편으로는 미술과 비-미술 분야 간의 협력적 문화 생산을 시도해왔다. 동시에 미술 전시의 관습은 부드럽게 바뀌어가고 한편으로는 비미술분야에서 행해지는 전시의 관행들을 예술적으로 혁파하는 일을 궁리, 실천해가고 있다.

2013년 현대미술에서의 2인 협업창작 시스템에 대한 오랜 관심을 발전시킨 <2의 공화국>이 아르코미술관 기획공모전에 선정되어 개최되었고, 같은 해 동경국제도서전의 주제국전 <필담창화일만리(筆談唱和壹萬里)>와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지리특별전의 전시 감독을 맡았다. 가장 최근에는 <리서치,리:리서치>(탈영역우정국, 2016)를 통해 예술가들의 장기 조사연구작업을 비평적으로 재배치하고 담론화 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이어, 한-대만 큐레이터 교류 프로그램에서 촉발된 협력 기획전 <동백꽃 밀피유>를 공동기획하였다. (아르코미술관, 2016-2017)

심소미

개입으로서의 전시기획: 연구 활동과 장소 실천 그리고 그것들의 네트워킹

경희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도시연구, 장소 리서치를 기반으로 동시대 시각문화 현상에 접근해 오고 있다. 특히 장소에 대한 사회인문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대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연구를 매개한 전시기획을 선보여 왔으며, 미술과 건축 관련 글을 써오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메가시티 속 마이크로 도시 개입을 수행한 '마이크로시티랩 Micro City Lab' (인디아트홀 공, 2016), 지도에 없는 장소를 맵핑한 '신지도제작자 New Cartographers' (송원아트센터, 2015), 이동/이주하는 공간의 사회적 배경을 다룬 '모바일홈 프로젝트 Mobile Home Project' (송원아트센터, 2014)가 있다. 이러한 전시 기획을 통해 전시 담론과 장소 실천을 수행적으로 매개하고, 큐레이토리얼 실천 영역을 도시 공간으로 확장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 활동으로는 사회적 건축 리서치 (베니스, 로테르담, 2016), 동북아시아 메가시티 리서치 (2015), 런던 큐레이토리얼 워크샵 (2014) 등이 있다. 2016년에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 연구자로서 입주해 활동한 바 있으며, 건축조경잡지 '환경과 조경'에 도시와 미술에 대한 칼럼을 일 년간 기고하였다.

기존에는 갤러리 스케이프 책임큐레이터(2005-2015), 갤러리킹 공동디렉터(2004-2008),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큐레이터(2003-2004)로 활동하며 대안적 영역과 미술 시스템 사이에서 생산자 기반의 네트워킹을 상호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표 전시로 '컬랩스' (합정지구, 2016), '플로베르의 침묵' (갤러리 스케이프, 2015), '페인트 오브 뷰' (갤러리 스케이프, 2014), '숨겨진 차원' (갤러리 스케이프, 2013), '다섯개의 프롤로그' (갤러리 스케이프, 2012), '가변하는 얼굴' (갤러리 킹, 2010) 등이 있다.

김현주

여분으로서의 기획자의 삶, 그래서 분주한 폐업큐레이터의 매개적 역할

김현주는 고려대학교 철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전문사(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 협동과정 박사과정에서 예술에서 선물 가치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주제로 학위 논문을 작성 중이다. 정체성을 폐업큐레이터에 두고 있으며, 일이 있을 때에만 잠깐씩 개업하고 일이 있을 때만 글을 쓴다.

2005년 SAMUSO: Space for Contemporary Art 전시팀원으로 실무를 시작하여 2006년 국제창작스튜디오 예술현장통의동 기획자 및 프로젝트 매니저,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매개공간 매니저 및 시각예술 프로그래머, 2009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본전시 큐레이터로 일하며 주로 스타트업 공간과 기획의 카오스적 복합계를 경험하면서 조직에서의 전시 실무를 익혔다. 내적 성향이 기관이나 조직 큐레이터의 생리에 적합하지 않음을 파악하고 2010년대부터는 연구, 강의, 기획, 비평 등 이론과 실천에 각각 절반의 지분을 두고 운신하고 있다. 그러나 폐업큐레이터에서도 표방하듯 독립은 세계내에서 허상으로 보며 가능하면 전시든, 작품이든 세상에 내놓지 않는 편이 가치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세상에 내놓을 때에는 최소한의 도덕과 가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2014년 바이칼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디렉터를 계기로 2015년 러시아 이르쿠츠크 국립 미술관에서 한-러 국제교류전 <한중의 도덕>을 개최하였고 서울루나포토펬스티벌의 <Cutting on the Bias>(2015), 젊은사진작업에 대한 전시 <Open-end(ed)>(2016)를 기획했고, 한-대만 큐레이터 협력기획전 <동백꽃 밀피유>(2016-현재)를 공동 기획했다. 기획자보다는 매개자 역할에 자분하며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구현보다 예술의 경계를 지시할 때 발생하는 질문에 주목한다.

이단지

복합천 실천으로서의 큐레이팅: 작가들의 러닝메이트, 기관들 사이의 프로그래머

이단지는 70년대 아방가르드와 밀레니엄 이후의 신세대, 주변과 중심, 시장과 정책, 개인과 집단의 얇고 작은 연대에 대해 매우 주관적이고 게으르게 관찰하고 있다. 전시기획과 시각예술 프로젝트 프로덕션, 워크숍 프로그래밍과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그래머와 러닝메이트 등, '큐레이터'의 범위를 넓힐 만한 스스로의 역할을 점검 중이다. 최근 허수영, 정지현, 차혜림, 백현주, 배윤환, 이윤이, 김실비, 한정우 등의 개인전을 프로듀싱했으며 <인사미술공간 작가/ 큐레이터 워크숍>(2012-2015)을 기획, 운영하였다. 주요전시로는 <Push, Pull, Drag>(2016), <욕망의 진화_Mega Stuff>(2010), <세상부림없어라>(2008), <숨겨진 시선>(2008), <박기원 개인전>(2004) 등이 있다.

2002년 시공갤러리를 시작으로 조현화랑, 갤러리쌘지 등, 상업화랑에서 경력을 시작하였다. (주)쌘지와 아트컴퍼니 H를 거치면서 아트 마케팅적 측면의 기업 프로모션 현장을 경험하였다. 2012년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에 재직하며 예술현장 지원정책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 하였으며 주로 '차세대예술인력 육성'을 위한 시각예술분야 사업과 인사미술공간을 총괄 운영하였다. 인미공 퇴사 이후 지난 가을까지 국내의 한 기업이 개관한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의 학예팀장으로 개관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였다.

예술의 실천에 있어 정책과 기관의 관점은 객관적이면서도 해당분야를 고민했던 수많은 행정/기획/예술가들의 주관들의 집적된 역사이다. 동시에 큐레이터로의 범위가 단순히 큐레토리얼 연구 이외에도 행정적, 경영적, 철학적, 환경적 실천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역사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비전에 대한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업무 환경은 다행히 여러 방향의 조건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었다. 새로운 일과의 만남은 도전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현장으로부터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프로젝트를 임하는 순간마다 확인한다.

조은비

큐레이터의 자기조직화: 불투명한 언어의 틈에서, 내밀한 서사 위에서

동덕여대에서 큐레이터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과(석사논문 “문래동 창작촌의 문화정치학”)를 졸업했다. 잉여, 거주, 젠더, 공동체 등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출발한 고민을 토대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조건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미술의 언어로 드러내는 데에 관심을 가져왔다.

KT&G 상상마당 갤러리(2010~2012)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며,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퍼블리싱’의 의미를 탐구한 <ABOUT BOOK - 셀 수 없는 모음>(KT&G 상상마당 갤러리 2011), 청년 세대의 ‘잉여력’과 정치성에 주목한 <파동, The forces behind>(제 1 회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공동기획, 두산갤러리 서울/뉴욕, 2012) 등을 기획했다. 이후 아트 스페이스 풀(2013~2015)로 이직하여, 거주에 관한 문제의식을 청년 주거, 재개발 등의 사회적 문제로 확장한 <아직 모르는 집>(2013), 언어가 포착하지 못하는 틈을 형태적인 표현으로 확장하고자 한 <회색의 바깥>(2014)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현재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오늘날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상호성/공감과 같은 감정적 상태를 ‘부력’이라는 물리적 작용에 빗대서 풀어본 <여기라는 신호>(갤러리 팩토리, 2015), ‘큐레이터’를 둘러싼 직업적 서사가 부재해왔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동료 기획자들을 모아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전시 <내/일을 위한 시간>(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016), 의미를 하나의 키워드로 규정하려는 의지 앞에서, 미술/언어에 잠재한 ‘불확정성’을 전면에 내세우고자 했던 <복행술>(케이크 갤러리, 2016)을 기획했고, 공동 번역서 『스스로 조직하기』(미디어버스, 2016)를 출간했다. 2017년 6월 두산갤러리 서울에서 기획전 <모빌(가제)>을 선보일 예정이다.